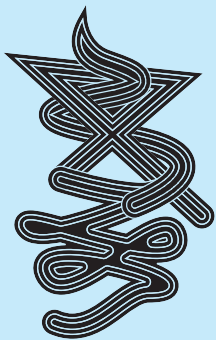


Ho Sin Tung, You are the Sucker of My Eyes, Pencil on paper, 19 x 34.3cm, 2012



20  
14  
9.2  
-  
11.23

귀  
신

귀신 간첩 할머니

Ghosts, Spies, and Grandmothers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희망서울

서울시립미술관



CAST  
미디어시티서울2014

# 괴력난신 怪力亂神

〈CAST〉는 Art가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특정 주제를 공동으로 기획, 진행하는 지면이다. 그 첫 파트너는 박찬경과 미디어시티서울2014. 지난 6월호의 '냉전극장'에 이어, 이번 호의 '괴력난신'은 올 9월에 개막하는 미디어시티서울의 주제 '귀신 간첩 할머니' 중 '귀신'을 집중 조명한다. 귀신과 무속신앙, 부적,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와 애도에 관한 세 편의 논고를 실는다. / 편집부

김인수 <악령> 스틸컷 1974





# 고독한 유령의 호출

박찬경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귀신은 고도로 복잡한 모순 관념이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즉시 귀신은 살기 시작하는데, 살아 있는 자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삶과 죽음의 모순과 교착을 표현하는 말이 귀신이다. 또 귀신은 죽음의 확증이지만, 동시에 삶의 연장이다. 그런가 하면 귀신은 하나의 이미지이자 동시에 실체이다. 소리나 냄새도 귀신일 수는 있겠으나, 귀신이야말로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지면에서 오현리가 소개하는 부적처럼 귀신은 떠나니고 흘러 다니는 이미지의 본래적인 속성에 가깝다. 이미지가 사물에서 떨어져 나온 흔적이나 파생물인 것처럼, 귀신도 한때의 육체를 지시하는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귀신은 죽음 앞에 선 우리(산 자)의 분열이다. 행복한 죽음이란 드물며, 원통한 죽음은 많다. 인정할 수 없는 죽음이나, 인정해서는 안 되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분열은 정당하다.

인류의 역사에서 귀신의 존재를 부인한 시기는 아주 짧다.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을 귀신과 함께 생활해 왔다. 근대성은 귀신을 끊임없이 외부로 몰아내려 했지만, 오히려 근대의 무의식 한가운데 귀신이 살고 있다는 것도 당연하다. 만약 현대사회가 인류 대다수의 행복한 삶과 그런대로 인정할 만한 죽음을 낳았다면, 우리가 귀신을 굳이 다시 불러 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 학살, 대참사와 방사능 오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귀신(神)은 괴이함(怪), 폭력(力), 혼란(亂)의 결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그녀를 불러 그 괴이함, 폭력, 혼란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한다. 귀신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곧 누락된 역사, 개인사, 구술사, 목소리, 곡성을 듣는 것이다. 또 더 근본적으로는, 그 ‘괴력난’이 누락시킨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고향을 누비며 귀신과 놀아 온 황루시 선생은

한국 귀신문화의 지혜를 묘사하며 그 따뜻한 애도의 공동체적 가치를 전한다. 귀신은 그 누구보다도 문화적인 존재이며 향의 냄새나 방울(종)소리를 분간할 줄 알 것이므로 탈식민 담론과 깊숙이 관련된다. 문강형준은 애도 자체가 어떤 정치적 가치를 지니는지, 지닐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쓰면서, 파국의 윤리학자답게 애도마저 불가능한 시대를 두려워한다. 이는 물론 모두 세월호 참사라는 근대 한국의 총체적 몰락 앞에 내놓은 절치부심의 결과이다. 귀신과 우리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원혼은 언제나 사건을 아주 잘 기억한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게’라고 확인했던가.

- ❶ 귀신이 난무하는 세상 / 황루시
- ❷ 애도의 차원들 / 문강형준
- ❸ 부적, 천계의 비밀코드 / 오현리

# 귀신이 난무하는 세상

황루시







김수남 <강사리 범굿, 경상북도 강사리> 1981  
'국내 1호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꼽히는  
김수남(1949~2006)은 한국의 굿 현장과 아시아  
소수 민족의 전통문화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작품은 미디어시티서울2014에 출품된다.

왼쪽 페이지  
김수남 <제주도 신굿, 제주도 동김녕리> 1981  
불도할망다리추깃을 하는 모습. 광목 한 필을  
사용해 불도할망이 오실 다리를 만들고 있다.

이전 페이지  
김수남 <강사리 범굿, 경상북도 강사리> 1981  
거대한 신목 앞에 제상을 차리고 무녀가  
청신(淸神)을 한다.



어릴 때 집에서 가장 무서운 공간은 두말할 것 없이 측간이었다. 우리 집 측간은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러 가장 외진 담에 붙어 있었다. 한밤중, 참다 참다 안 되면 손전등을 움켜쥔 채 천년 묵은 향나무 밑을 지나 우물과 사철나무 사이길 끝까지 조심조심 가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측간에 도착하면 일렁이는 전등 불빛에 공포는 더욱 커진다. 재래식 화장실은 아래가 관건이다. 발 벌리고 쭈그려 앉았을 때 느껴지는 섹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밑을 내려다볼 수 없다. 거기에는 입술을 빨갛게 칠한 변소각시가 살기 때문이다. 앉아 있는 시간이 10초나 될까. 짧은 순간이지만 공포의 밀도는 지금 떠올려도 심장이 쫄깃하다. 불일을 보면 늘 허둥지둥 옷을 올리고 뛰어나왔다. 팬스레 뒤를 돌아보았다가 변소각시와 눈을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에 미친 듯 방으로 도망쳐 왔던 기억이 아련하게 웃긴다.

변소각시는 어린 시절 서울 외곽 낡은 기와집에 살았던 나를 가장 구체적으로 괴롭힌 귀신이다. 그러나 당시 내 마음 속에는 수많은 귀신이 살고 있었다. 하얀 눈 위에 똑똑 선연한 핏자국을 남기는 처녀귀신, 앞서 건다가 갑자기 획 뒤를 돌아본다는 맨 얼굴의 달걀귀신, 변소에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손만 내미는 아가귀신. 정작 귀신을 본 아이는 없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무서운 법이다. 귀신 이야기는 무섭고 재미있었다. 긴긴 겨울밤이면 동무들과 소근소근 귀신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증폭되는 공포심에 서로 이불을 파고들면서 하룻밤에도 수십 개의 귀신을 만들어 내곤 했다. 아이는 크기 마련이다. 중학생이 되고 동무들은 흩어지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집이 시내로 이사를 간 뒤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귀신은 서서히 사라졌다.

#### 무속신앙과 귀신

우연히 무속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후 나는 새로운 신들을 알게 되었다. 무속에는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던 천지와

인간을 창조한 창세신은 물론이고 하늘과 땅, 자연 만물과 우주 운행을 책임지는 신들이 있었다. 마을에는 마을지킴이가 있고 집안에는 변소각시뿐 아니라 집안 곳곳 안방, 부엌, 우물, 마당, 외양간 구석구석 신이 많기도 했다. 성주는 집안 전체를 보호하고, 조왕은 부엌을, 터주나 엽은 마당에서 복을 주는 신이며, 변소각시는 오로지 변소만 자기 영역으로 하는 신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신화의 주인공인 신들의 내력담은 상당히 감동적이었다. 요즘 같으면 미혼모라고 할 수 있는 당금애기의 여성 수난사나, 딸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저승에 가서 약물을 길어 부모를 살린 효녀 바리데기, 제주도 자청비 같은 여신들의 이야기가 특히 재미있었다. 생명의 뿌리인 조상도 무속에서 중요한 신이었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삼신, 제석, 대감, 칠성, 손님, 시왕 등 생명과 건강과 복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무속신앙에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호하는 신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하긴 무속은 다신교이니 신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신들린 무당을 높여 만신이라고 부르는데, 만 종류의 신을 모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제주도는 신의 숫자가 분명하다. 제주도의 무당인 심방들은 굿을 할 때마다 1만8천신을 청해 굿당에 모신다. 육지보다 섬이 더 신이 많은 모양이다. 하지만 그 많은 신 가운데 어릴 때 내가 두려워하던 귀신들은 없었다. 사실 그들 대부분은 귀신도 아니었다.

그러면 무속에서 귀신은 무엇일까? 흔히 '귀신처럼 안다'는 말이 있다. 이 경우 귀신과 신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적인 신과 귀신을 동일시하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원래 '사람 죽어 귀신'이다. 무속에서는 신과 귀신을 확실히 가른다. 신은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존재이고 귀신은 인간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귀신을 내쳐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존재지만 굿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귀신. 인간도 신도 아닌 귀신은 중간자적 존재이다. 무당들이 하는 덕담 중에 “자는



잠에 열반하시라”는 말이 있다. “아이고 할머니네요. 그저 오래 아프지도 마시고 병원도 가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태 무녀 굿 보시면서 살다가 하루 이틀 누워서 가까운 데 자식, 먼 데 자식 다 불러 마지막 말씀하시고 그저 편안하게 자는 잠에 열반하시쇼!” 이런 축원을 들으면 할머니들은 손뼉을 치면서 좋아한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내심 더 좋아하는 말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는 축원이다.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라고 한다. 죽어야지, 죽어야지, 입에 달고 살야도 정작 죽고 싶은 사람은 없는 법이다. 오죽하면 개똥발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모든 죽음은 원통하다.

언제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 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미련이 남게 마련이다. 그래서 죽어도 쉽사리 저승에 가지 못한다. 죽었으니 이승에 남을 수 없고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저승에도 못 간다. 결국 죽은 이는 이승과 저승, 그 사이를 떠도는 존재가 되는데 이를 무속에서는 귀신, 또는 잡귀라고 부른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 귀신이 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승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승에는 가지 못한 경계의 존재가 바로 귀신인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소속이 불분명한 존재이다. 근거가 없어 도무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속신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굿을 하여 소속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넋굿’이라고 부른다.

무속은 적어도 삼국시대 이래, 소수림왕이 중국에서 유교 불교 도교를 수입하여 통치 이념으로 삼았을 때부터 지배 계층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민중의 신앙으로 일관해 왔다. 통일신라와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고 유교를 신봉한 조선에는 무당이 천민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무속은 살아남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속이 유교와 조상을 갈라 험한 조상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았던 공로가 가장 크다고 본다. 유교의 기본은 조상에 대한 제사이다. 그러나 제사를 받는 유교의 조상이 되려면 조건이 까다롭다. 정상적으로 태어나 잘 성장하여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뒤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만이 유교의 제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들이 있어도 객사를 하거나 험한 죽음을 당하면 그 역시 유교의 조상이 되기는 어려웠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죽음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 한풀이, 넋굿과 씻김굿

무속은 유교에서 버린 조상을 끌어안았다. 비정상적인 삶, 또는 비정상적인 죽음이야말로 무속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이다. 한이 클수록 굿의 필요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문화는 죽음이 삶에 깊이 개입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분명 죽었지만 여전히 산 사람의 마음속에서 남아 사사건건 삶에 영향을 미친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죽은 후 며느리는 마음이 편치 않다. 아이가 아파도, 남편이 실직해도, 모든 원인을 죽음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삶에 개입하는 죽음이 바로 귀신이다. 살아생전 한이 많을수록 귀신의

영향력은 더 강해지게 마련이다. 넋굿은 바로 이런 귀신의 한을 풀어 저승으로 천도하는 의례이다.

넋굿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데 서울이나 경기도, 황해도에서는 진오기굿(지노귀굿), 규모가 크면 새남이라고 부른다. 함경도는 망목굿, 평안도는 수왕굿, 제주도는 시왕맞이, 전라도에서는 씻김굿이라고 부른다.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고 세습무가 주관하느냐, 신들린 무당이 하느냐에 따라 내용도 차이가 있지만 굿의 기능은 같다. 죽은 이의 한을 씻기고 풀어내어 깨끗한 존재,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저승으로 천도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풀이다.

씻김굿은 망자를 깨끗이 씻긴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짚자리를 펴고 그 위에 속옷부터 두루마기까지 차례로 옷을 놓아 죽은 이의 신체를 만든다. 두루루 말아 일곱 마디를 묶어 세운 뒤 머리가 되는 맨 위에 솔뚜껑을 덮는다. 결혼을 못한 사람은 바가지를 덮는다. 이렇게 만든 망인의 신체를 쭉물 향물 맑은 물로 차례로 씻겨 나간다. 한국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하다고 생각한다.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도 날을 잡은 이후 동네 안에 산 부정, 죽은 부정이 생기면 미루거나 야에 거르는 법이다. 산 부정은 출산, 죽은 부정은 초상을 말한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출산이 임박한 산부들은 마을 밖에 산막을 짓고 동제기간 동안 내보냈던 것이다. 그래서 망자로 인해 일어난 죽음의 부정을 씻겼다. 하지만 정작 이때 씻기는 것은 부정만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망자의 한이다. 미처 못다 한 말, 이루지 못한 일,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 등은 한이 되어 죽은 이를 이승에 붙잡아 놓는다.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저승으로 훨훨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씻김굿은 미련을 깨끗이 씻어 내는 의례이기도 하다. 쭉물 향물 맑은 물로도 안되면 비누로 씻기고 빗자루로 씻겨 내고 마지막에는 수건으로 잘 닦는다. 행여 한 톨의 미련이라도 남길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깨끗이 씻기는 것이다. 씻김이 끝나면 다시 고풍이로 한을 풀어 낸다.

무녀는 마당 기둥에 무명 한끝으로 쌀 담은 주발을 묶어 맨 후 나머지 형겅으로 일곱 개의 매듭을 만든다. 마디마디 맺힌 일곱 개의 고는 삶의 회한이 만든 피명이다. 무녀는 신칼을 들고 불쌍한 망자가 생전에 맺힌 한을 고로 풀어 가라고 축원한 뒤 고를 들고 춤춘다. 양손에 고를 들고 휘두르면서 춤을 추다 보면 고가 하나씩 풀려 간다. 천 마디, 만 마디의 넋두리가 소박한 징 가락에 담긴 채 춤을 춘다. 야무지게 맺힌 고가 하나씩 풀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망자가 이승의 결박에서 풀려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느낀다. 고풍이는 가장 절제되고 예술적으로 승화된 한풀이의 절정이다.

신들린 무당의 한풀이는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무당은 스스로 망자의 넋을 실려 생전에 못다 한 말을 넋두리한다. 망자의 옷을 입은 무당이 죽은 이가 되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눈물로 작별하는데, 이를 영실 또는 기밀이라고 부른다.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단절시킨다. 한순간에 타자가 되어 버린다. 이런 죽음 앞에서 속절없는 망자도 그렇거니와 산 가족이라고 답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못다 한 말, 못다 표현한 애끓는 속정은 산 자나







김수남 <황해도 지노귀굿, 서울 석관동> 1985  
망자의 넋을 실은 만신과 가족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며 통곡하는 모습.

이전 페이지  
김수남 <황해도 지노귀굿>(부분) 1983  
지노귀굿은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인도한다. 이정에 만신이 작두에 올라 공수를 주는 모습.

죽은 자나 다름 바가 없는 것이다. 굿판은 삶과 죽음이 만나는 유일한 공간이다. 굿이 있어 죽은 이는 가족에게 자신의 한을 풀어 낼 수 있고 산 가족 역시 갑작스러운 죽음에 당했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서로의 맺힌 것을 풀어 내고 마침내 자유로워진다. 망자는 비로소 가벼운 존재가 되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산 자는 가슴에 남아 있던 회한을 풀고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진다.

넋굿의 마지막은 길뉘임이다. 무명 한 필을 모두 풀어 양쪽에서 단단히 잡고 무당이 그 위를 신칼과 넋상자로 정성스레 닦아 나간다. 이제 씻김과 고평이로 모든 한을 풀고 깨끗한 몸이 된 망자는 뗏뗏이 저승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무당은 길베로 상징한 저승길을 염불과 축원 덕담으로 닦아 망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신들린 무당은 가슴으로 길베를 찢는다. 씨줄 날줄을 교차하여 촘촘하게 짠 베는 온갖 인연으로 얽힌 우리네 인생의 축소판이다. 길가름은 망자가 모든 생전의 인연을 끊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죽음은 죽음의 세계로, 산 자는 산 자의 세계로 각각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무당의 축원과 가족의 환송을 받으며 저승에 간 망자는 더는 귀신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불쑥불쑥 삶에 끼어들어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다. 굿을 받은 망자는 무속의 신 가운데 하나인 조상이 된다. 굿을 할 때나 제사를 올릴 때 점잖게 와서 대접받고 자손을 위해 마음 써 주는 조상신으로 질적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산 자와 죽은 자, 누가 귀신인가?

조상신 외에도 무속에는 사람이 죽어 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인신계통의 신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최영 장군이나 사도세자, 임경업 장군이 그러하다. 고려 충신 최영 장군은 개성과 서울 지역에서 상산마누라라는 산신으로 신앙된다. 사도세자는 서울 지역에서 별상이라는 신이 되었고, 임경업 장군은 황해도 지역에서 조기를

많이 잡게 해 주는 어민들의 서낭신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대한 인물, 또는 높은 신분의 인물이 뜻을 펴지 못한 채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점이다. 그 억울함이 하늘을 울려 결국 수많은 민중이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 위대한 인물은 아니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안타까운 죽음도 공동체의 신으로 좌정한다. 강릉단오제의 대관령국사여서낭은 호랑이에 물려 죽은 정씨 처녀이고 주문진 진이서낭은 현감의 무리한 수청 요구를 거절하다가 죽음을 당한 여인이다. 억울함에 공감한 민중들이 지역 수호신으로 모시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한을 풀어 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 집안의 조상신을 뛰어넘어 더 큰 공동체의 신이 된 경우이다.

결국 귀신은 무엇인가.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모든 죽음에 대한 예의, 그 중에서도 시대를 잘못 만나 뜻을 펴지 못하고 비명에 간 참혹한 죽음, 결혼도 못한 채 청춘에 간 안타까운 죽음,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을 두고 혼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죽음 등 모든 실패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귀신을 만든다. 생각해 보면 귀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귀신이 품고 있는 한이 중요하고 그 하나하나의 사연이 중요하며 반드시 그 한을 풀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몇 백배 더 중요하다.

도처에 귀신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들의 한을 풀어 줄 때이다. 외면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억울한 귀신을 만들어 낸 산 귀신들의 정체를 밝혀 제대로 한을 풀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큰 굿을 해야 할 것 같다.

# 애도의 차원들

문강형준





‘애도(哀悼)’란 ‘죽은 이를 슬퍼하다’라는 의미다. 한자어로 哀, 悼, 각 글자는 모두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지만, ‘도(悼)’라는 글자에는 ‘죽은 이에 대한 슬픔의 의미가 덧붙여 있다. 비슷한 계열의 단어인 ‘추도(追悼)’ 역시 ‘도’ 자가 붙어 죽은 이를 ‘따르며(追)’ 슬퍼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일상어에서는 ‘추도’보다는 ‘애도’가 훨씬 더 깊은 감정적 슬픔을 떠올리게 만든다. ‘애도’가 격렬한 감정의 슬픔을 느끼는 내면적 뉘앙스를 풍긴다면, ‘추도’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이성적이고 의례적인(ritual) 차원에서의 슬픔이 느껴진다. ‘추도식’은 있으나 ‘애도식’은 없다. 앞 뒤 글자 모두 슬픔으로 이루어진 이 ‘애도’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상실감을 포착해 낸다. 그런 의미에서 애도는, 역시 추도와는 달리 친숙하고 친밀한 이의 죽음을 몰래 지시하고 있다. 깊은 상실감은 깊은 친밀감을 느꼈던 대상으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은 대상과는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 역시 깊고 넓기에, 그 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모든 기억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대상은 사라졌지만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으며, 그 기억의 강도(強度)가 애도를 가능케 하는 셈이다. 영어로 애도를 의미하는 ‘mourning’의 어원이 된 고대 독일어 ‘murnan’은 ‘슬프게 기억하다’라는 뜻이며, 다시 이 ‘murnan’의 뿌리가 되는 ‘mer-’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memory’의 어원이 되기도 한다. 즉, 애도한다는 것은 단지 슬퍼한다는 차원을 넘어 어떤 대상을 기억하는 행위다. 애도의 주체는 대상과의 그 기억 때문에 상실의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주체다. 고통이 없다면 애도가 아니다.

프로이트는 애도의 행위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고통을 주시한다. <애도와 우울증(Mourning and Melancholia)>이라는 에세이에서 그는 애도를 가리켜 “사랑했던 사람의 상실, 또는 사랑했던 사람과 동일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조국, 자유, 이상 등과 같은 관념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자신이 리비도를 쏟았던 사랑의 대상이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에 주체는 이제 사라진 그 대상에 대한 리비도를 회수하는데, 리비도를 거두어들이는 과정이 너무나 강렬하기에 주체는 현실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대상에 대한) 판타지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착하게 된다. 프로이트 정신분석에서 애도란 바로 대상에 대한 리비도의 회수 과정에서 생기는 주체의 고통을 의미한다. 하지만 애도의 고통은 언젠가는 끝난다고 프로이트는 말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사랑했던 대상이 이제 완전히 현실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체는 다시 리비도를 쏟을 대상을 발견함으로써 애도의 고통은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 전환, 행동

애도의 고통이 프로이트의 말처럼 그렇게 심리적 차원에서만 완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투사했던 리비도를 되돌리는, 애착했던 대상의 상실을 인정하고 다른 대상으로 교체하는 과정은 내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며, 심리 바깥의 영역, 곧 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투쟁으로 격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령, 소포클레스의 ‘테베 3부작’ 중 하나인 《안티고네》는 어떤가. 《안티고네》의 갈등은 애도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극은 테베와 아르고 사이의 전쟁이 테베의 승리로 끝난 후, 아르고 군대를 이끌었던 외디푸스의 장자 폴리니케스의 시체를 절대 장사 지내지 말라는 크레온 왕의 선포에서 시작한다. 극을 여는 안티고네의 첫 대사는 왕의 선포가 가족의 비극을 다시 연장시키고 있음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그녀는 왕의 선포를 어기고 오빠 폴리니케스를 장사 지내기로 한다. 오빠가 아무리 적의 편에서 싸웠다 해도 그의 가족으로서 안티고네에게는 그의 죽음을 정당하게 장사 지낼, 즉 제대로 애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크레온이 표상하는 국가의 법은 죽은 오빠를 제대로 애도해야 한다는 안티고네의 결심을 꺾지 못한다. 안티고네의 애도 의지는 왕/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로 귀결되고, 그녀는 결국 그로 인해 죽는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새롭게 왕이 된 동생의 결혼식 날에 이미 죽은 왕의 유령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버지의 사인(死因)을 의심하면서, 어머니의 재혼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햄릿은 아버지가 제대로 애도되지 못했음을 불만스러워 하던 중이었다. 그런 햄릿이 죽은 아버지의 유령과 마침내 대면했을 때, 아버지의 유령은 말한다. “잘 있거라,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나를 기억하거라(Adieu, adieu, adieu,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기억의 당부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영어로 ‘애도’와 ‘기억’의 뿌리가 같다는 점을 환기한다면 ‘나를 애도하라’는 당부이기도 하다. 이 말을 들은 이후 햄릿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 애도를 완수하기 위해 덴마크 궁정 전체의 진실을 밝혀내려는 투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햄릿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안티고네》와 《햄릿》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무엇인가. 애도가 심리적인 슬픔과 고통에서 비롯되지만, 그 애도의 실현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으며 의무의 수행(《안티고네》)으로, 진실의 현현(《햄릿》)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애도라는 고리는 이 두 극에서 모두 애도를 수행하려는 주체로 하여금 제대로 된 애도를 막는 법과 국가에 맞서게 만든다.

안티고네와 햄릿을 ‘투사’로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사랑했던 이의 죽음이었고, 그들은 그 죽음을 정당히 기억하고 정당히 기념하려는 애도의 의무를 국가의 법과 권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켰다. 크레온 왕의 칙령 앞에서 안티고네가 당당히 던지는 말은 애도가 가진 법-초월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죽음은 모든 이가 동등한 의식을 치르기를 바라니까요.” 죽음에 내장된 이 ‘동등성’의 원리는 애도에까지 확장되며, 제대로 된 애도를 막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힘 있는 것이라 해도 깨뜨리고 넘어서야 할 장벽일 뿐이다. 죽음 앞에서, 애도의 의무 앞에서 이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은 주체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완벽히 변화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불확실한 삶(Precarious Life)》에서 정확히 이 점을 포착해 내고 있다. “상실에 의해 자신이, 어쩌면 영원히,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애도하는 것이다. 아마 애도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모든 결과를 받아 안으며 자신의 전환(transformation)에 동의하는 것, 혹은 전환에 복종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 아닐까.” 애도는, 애도의 슬픔과 고통은, 결국 자신이 완벽하게 변화한다는 것, 그 변화에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잔잔히 흘러가던 일상을 일순간 정지시키는 힘을 갖는다. 죽음을 마주한 이는 죽음 앞에서, 그것이 아무리 모두에게 ‘동등’한 것이라 해도,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한다.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가능하다. 애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시작이 진정 완결될 수 있으려면, 죽음의 이해와 기억을 통해 자신 역시 바뀌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야만 한다. 이 ‘사건’의 스펙트럼은 아마 다양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를 영원히 기억하기로 결심하는 일에서부터 석연치 않은 죽음의 진실을 밝혀 내기 위해 투쟁하기로 마음먹는 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하지만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진정으로 겪어 내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전환의 계기를 발견해 내며, 자신을 변화시킨다. 버틀러를 따라 이 변화의 과정을 애도라 명명한다면, 애도는 이제 더는 프로이트적인 의미의 심리상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애도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건이 드러내는 진리에 충실히 따르는, 바디우적인 의미에서의 ‘사건에의 충실함(fidelity to event)’이라고도 할 만한, 그런 행동(action)을 가리키는 이름이 된다.

### 윤리, 정치

애도를 죽음이라는 사건에 내포된 의무와 진리 앞에서의 충실함이자, 그것이 요구하는 변화에 자신을 내맡기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때, 애도는 단순히 슬픔에의 침잠을 넘어선 윤리적 결단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애도의 윤리란 게 있다면, 아마 그것은 ‘책임감’일 것이다. 망자에 대한 책임감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감이고, 그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국가와 체제에 맞서는 행동이

2009년 1월 19일 발생한 용산참사



애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애도의 윤리가 주체의 변화를 통해 작동했을 때이다.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책임감, 곧 애도의 윤리가 죽음 바깥의 사회와 충돌할 때 애도는 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한 개인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의 수행이 기존 사회의 가치와 불화할 때 애도의 행위는 그 사회의 가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을 주문하고, 이 싸움, 이 투쟁은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넘어 ‘기존 가치와의 투쟁’이라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행위로 전화(轉化)한다. 안티고네와 햄릿에게서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목격했다. 애도의 정치적 전화가 문학에서의 사건만은 아니다.

2009년 1월 20일에 발생한 용산참사를 보라. 재개발 사업을 밀어붙이던 용산구와 철거민 간의 대립, 이 대립을 분쇄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의 강경 진압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 사망, 그리고 23명의 부상을 가져온 그 참사를 아직 ‘기억’하는가. 어쩌면 용산참사는 이 철거민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에서부터 진짜로 시작되었다. 철거민들의 죽음이 말하는 진리는 간단했다. 도시 재개발을 둘러싼 자본 권력, 이 탐욕을 뒷받침해 준 행정 권력,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대하며 완벽하게 짓밟은 경찰 권력이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힘없는 이들의 죽음이라는 것. 죽은 이들을 애도하는 행위란 이 죽음 앞에서 책임을 지는 윤리적 자세를 가지고 이 죽음에 담긴 진리, 곧 사람을 죽이는 권력에 저항하는 행위였다. 이 애도는 신자유주의적 자본과 권력의 복합체라는 우리 시대의 절대 권력에 맞선 투쟁,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투쟁과 동일한 의미였다. 죽은 철거민 다섯 명의 장례가 결국 참사 후 1년이 지난 2010년 1월 9일에야 열렸다는 것은 정치적 투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애도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것인지 보여 준다. 물론 용산의 망자들에 대한 애도는 ‘여전히’ 완결되지 않았다. 망자들은 장례되었지만, 그들의 죽음에 담긴 진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계속 죽음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의 죽음과 애도를 둘러싼 국가와 시민 간의 갈등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누가 애도될 수 있는가?’ 삶이 그렇듯, 죽음 역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애도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누구나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이 기준을 둘러싸고 애도는 다시 한번 그 정치적 성격을 선명히 드러낸다. 공동체에서 배제된 자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지 않는 자들, 체제의 헤게모니 반대편에 선 자들은 과연 애도될 수 있는가? 제대로 장사될 수 없었던 폴리니케스와 마찬가지로, 남일당의 망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분단과 냉전, 이데올로기와 비정상성이 그림자를 드리운 한국 현대사 전체에 걸쳐, 애도될 수 있는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5.18 광주 민중항쟁 희생자들의 경우처럼 때로 국가는 자신들이 죽인 이들을 ‘공식적’으로 애도할 수 있게 만들기도 했지만, 애도되지 못하는 사람들, 애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죽음들은 넘쳐난다. 멀게는 남한 정부가 부정하는 북파간첩들의 죽음에서부터 가깝게는 용산의 희생자들, 쌍용자동차 해고투쟁 이후



자살한 노동자들, 노동운동 과정에서 자살을 선택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는 애도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 이승에서 풀리지 않은 한으로 인해 유령이 된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정부와 국가의 ‘공식적’ 애도 바깥에 놓인 이들을 어떻게든 ‘기억’하는 것, 즉 그들을 제대로 ‘애도’하는 일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직 죽지 못한 안티고네고 햄릿이라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은 아니다.

## 파국, 애도

넘쳐나는 죽음은 유령으로 가득한 한국사의 카테고리를 넘어 일상의 곳곳으로 침투 중이다. 재난이 일상화된 ‘위험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올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이 말하듯, 현대사회는 이성과 합리성의 극대화라는 현대성 자체가 만들어 낸 재난의 높은 가능성 속에 존재한다.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던 현대성이 역으로 통제 불가능한 위험들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역설이 현대사회의 속성이다. 위험사회는 백화점에서, 다리에서, 지하철에서, 리조트에서, 체육관에서, 그리고 거대한 배 위에서 불쑥불쑥 모습을 드러낸다.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발생해 탑승자 476명 중 172명만을 남겨 놓고 침몰한 세월호 참사는 최근의 사례다. 세월호 침몰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냉전도 이데올로기도 역사도 아니었으며, 자본의 탐욕, 국가의 무능력, 어른들의 무책임함이 모두 결합된 총체적 위험성이었다. 어쩌면 세월호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일상적 재난의 모든 가능성이 집약되어 있는 ‘작은 한국호’였을지도 모르겠다.

위험이 재난을 만들고, 재난의 중첩이 위기를 가져오며, 위기의 증폭이 파국으로 귀결되는 연쇄적 논리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아니, 세계 전체가 이제는 위기와 파국의 사이클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의 급변은 극단적 날씨와 자연재해를 만들어냈고,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만성적 위기와 불안, 사회적 갈등을 일상화시켰으며, 자원의 고갈 예측은 우리가 알던 문명의 지속 여부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영화와 문학, 미술 등에서 급격히 늘어난 포스트-아포칼립스적 상상력은 상업적 성공을 위해 개발된 일회적 경향이라기보다 예민한 촉수를 가진 예술가들에 의해 이 시대의 본질적 문제가 서서히 포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위험-재난-위기-파국의 사이클 속에서 죽음의 전망은 이제 지역적이 아니라 지구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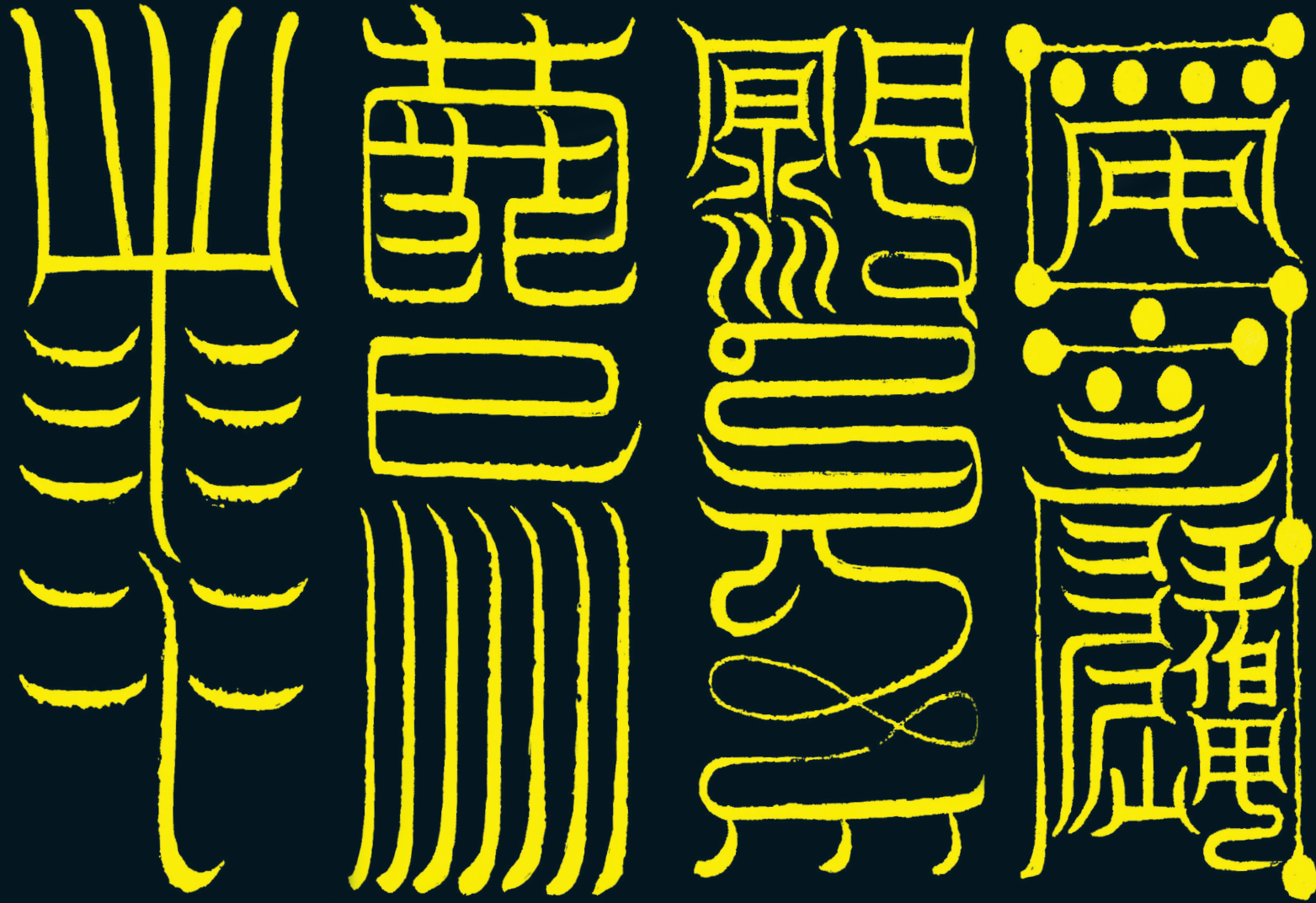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겠다. ‘과연 우리는 세계를 애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세계의 파국 앞에서 혹은 뒤에서 우리는 세계 자체를 애도할 수 있는가. 포스트-아포칼립스적 상상력은 엉망이 된 지구와 인간의 모습을 우리 앞에 펼쳐 놓는다. 문명은 사라졌고, 국가는 간데없고, 폭력은 난무하고, 생존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 끔찍한 미래 앞에서, 즉 오지 않았으나 언젠가 오고야 말 세계의 미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애도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 죽어버린 세계를 애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는 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세계 속에서 사는 나 역시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산 자가 죽은 자에게 행하는 일이 애도라면, 죽은 내가 죽은 세계를 애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포스트-아포칼립스의 상상력 속에는 애도가 등장하지 않는다. 좀비가 뒤덮은 세계를 그린 영화에서 생존자들은 죽음과 삶이 결합된 좀비라는 존재 앞에서 가치의 전도를 겪는다. 살아 있는 시체를 죽이는 일은 살인의 윤리를 벗어나 있으며, 당연히 애도될 리 없다. 좀비에 물려 곧 좀비가 될 동료와 가족을 죽여야만 하는 일마저도 심각한 트라우마로 작동하지 않는다. 좀비가 될 이에게 죽음은 오히려 선물이다. 죽음을 선물한 이가 죽은 이를 애도할 수는 없다. 파국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가 죽음과 파국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에는 그 누구도 죽음과 파국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다. 자크 데리다는 《애도의 작업(The Work of Mourning)》에서 우정의 법칙과 애도의 법칙은 동일하다고 말한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떠나야(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그럴 때만, 떠난 사람은 남은 사람에 의해 장사되고, 기억되고, 애도될 수 있다. 우정은 한 친구의 죽음이 남은 친구에 의해 애도될 때 비로소 완결되며, 애도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우정이 존재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어떤 이도 제대로 된 상태로 남겨두지 않는 파국의 세계가 결코 애도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개인-심리적 차원에서 애도는 상실한 자의 깊은 슬픔과 고통이다. 그 슬픔은 언젠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끝이 나는 ‘기간’이 있는 것이다. 애도가 윤리-정치적 차원으로 이동할 때, 애도는 진리에 대한 충실성을 다짐하며 진리를 가리는 세력과 싸우는 투사적 변환으로 확장된다. 슬픔과 고통은 일차원적 정동에서 벗어나 투쟁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한다. 가치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전에는 슬픔과 고통은 지나가지 않는다. 즉 애도는 영원히 진행되는 과정이다. 애도는 끝나거나, 혹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애도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다. 가족의 죽음, 연인의 죽음, 동료의 죽음, 이름 모를 노동자와 학생의 죽음. 이 모든 죽음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 모든 죽음을 어떻게든 애도하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 그렇게, 죽음은 삶의 다른 이름이 된다. 하지만 애도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세계 자체의 죽음이 바로 그 때다. 애도가 불가능해졌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망자의 세계 속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세계가 망자가 될 때는 그 어떤 애도도 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애도는 주체가 자신, 타자, 세계와 맺는 관계를 표상하는 강력한 기표가 된다. 죽음 속에서 삶을 기억해 내고, 관계의 끊어짐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며, 상실 속에서 전환을 생성시키는 애도의 역설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간다. 죽어간다.

# 부적, 천계의 비밀코드

오현리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 산(山), 명(命), 복(卜), 상(相), 의(醫)를 가리켜 동양오술(東洋五術)이라고 한다. 의는 의술, 산은 부적, 명은 사주명리학, 상은 관상, 수상 등 상학(相學), 복은 각종 점술을 뜻한다. 이들 가운데 의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운명과 관계가 있다. 명, 복, 상이 정해진 운명을 미리 엿보는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산 즉 부적은 염원 성취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부적은 미래를 알아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닥칠 운을 바꿀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첨단 과학의 시대인 오늘날조차 부적의 허실을 판단하고 효력의 유무를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믿는 정도에 따라 효험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믿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처럼.

#### 음양과 인과의 법칙

일찍 홀몸이 되어 외아들을 키우며 살아 온 여교수가 있었다. 학기말이 되어 연구실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으나 뜻밖에 아들은 거의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자취방에 혼자 있는데 복통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터라 병원이나 약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달리 도움을 청할 만한 친구도 없어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가까이 있다면 곧바로 달려가겠지만 머나먼 타국에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던 여교수의 눈에 문득 복사기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복사기에 대고 버튼을 눌렀다. 곧 작고 주름진 손이 복사된 A4용지가 출력되었고, 팩스를 이용하여 이를 아들에게 전송하며 이렇게 전했다. “네가 어려서 배가 아플 때 엄마가 손으로 쓸어 주면 낫곤 했지. 이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로구나.” 팩스를

받아든 아들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손이 복사된 종이를 배에 댔다. 신기하게도 곧 통증이 가라앉아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있었다. 아들에게 어머니의 손을 복사한 종이는 부적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부적을 사용할 때는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강한 믿음이 있다면 부적은 천하에 둘도 없는 법보(法寶)가 되지만, 불신한다면 그저 이상한 글자가 쓰인 종이폭지에 불과할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적이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남을 해치고자 부적을 사용한다면 일시적인 효험이 있더라도 후일 수백 수천 배의 재앙을 겪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음양과 인과(因果)의 법칙이다.

#### 신에게 명령을 내리다

부(符)란 돌로 나뉜 목판이나 대쪽이 서로 합쳐 상서(祥瑞)나 증험(證驗) 또는 위신(爲信)의 뜻을 가진 글자이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고 개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절, 그림이나 글자를 새긴 대쪽을 돌로 나누어 가졌다가 후일 맞춰 보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삼았고, 이러한 신뢰의 증표가 발전하여 증험과 상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어떤 문서나 소품이 개인 또는 집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부(符)라고 할 수 있다. 비종교인은 그저 한 권의 책이나 소품으로 여길 수 있는 성경이나 염주가 독실한 신자(信者)에게는 신성의 상징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 가운데 장신구의 형태를 띤 입체적인 것을 부작(符作)이라 하고, 종이에 문자나 문양을 그린 평면적인 것을 부적(符籍)이라고 한다. 가끔 부록(符籙)이라는 말도 사용되는데, 이는 대나무나 복숭아나무에 부를 새긴 것이다. 용맹의 상징인 사자 발톱이나 악어 이빨처럼 대개의

|                                                                                                                                                                                                                                                                                                                                                                                                                                                                                                                                                                                                                                                                                                                                                                                                                                                                                                                                                                                                                                                                                                                                                                                                                                                                                                                                                                                                                                                                                                                                                                                                                                                                                                                                                                                                                                                                                                                                                                                                                                                                                                                                                                                                                                                                                                                                                                                                                                                                                                                                                                                                                                                                                                                                                                                                                                                                                                                                                                                                                                                                                                                                                                                                                                                                                                                                                                                                                                                                                                                                                                                                                                                                                                                                                                                                                                                                                                                                                                                                                                                                                                                                                                                                                                                                                                                                                                                                                                                                                                                                                                                                                                                                                                                                                                                                                                                                                                                                                                                                                                                                                                                                                                                                                                                                                                                                                                                                                                                                                                                                                                                                                                                                                                                                                                                                                                                                                                                                                                                                                                                                                                                                                                                                                                                                                                                                                                                                                                                                                                                                                                                                                                                                                                                                                                                                                                                                                                                                                                                                                                                                                                                                                                                                                                                                                                                                                                                                                                                                                                                                                                                                                                                                                                                                                                                                                                                                                                                                                                                                                                                                                                                                                                                                                                                                                                                                                                                                                                                                                                                                                                                                                                                                                                                                                                                                                                                                                                                                                                                                                                                                                                                                                                                                                                                                                                                                                                                                                                                                                                                                                                                                                                                                                                                                                                                                                                                                                                                                                                                                                                                                                                                                                                                                                                                                                                                                                                                                                                                                                                                                                              |              |             |             |             |             |             |             |             |             |             |             |
|--------------------------------------------------------------------------------------------------------------------------------------------------------------------------------------------------------------------------------------------------------------------------------------------------------------------------------------------------------------------------------------------------------------------------------------------------------------------------------------------------------------------------------------------------------------------------------------------------------------------------------------------------------------------------------------------------------------------------------------------------------------------------------------------------------------------------------------------------------------------------------------------------------------------------------------------------------------------------------------------------------------------------------------------------------------------------------------------------------------------------------------------------------------------------------------------------------------------------------------------------------------------------------------------------------------------------------------------------------------------------------------------------------------------------------------------------------------------------------------------------------------------------------------------------------------------------------------------------------------------------------------------------------------------------------------------------------------------------------------------------------------------------------------------------------------------------------------------------------------------------------------------------------------------------------------------------------------------------------------------------------------------------------------------------------------------------------------------------------------------------------------------------------------------------------------------------------------------------------------------------------------------------------------------------------------------------------------------------------------------------------------------------------------------------------------------------------------------------------------------------------------------------------------------------------------------------------------------------------------------------------------------------------------------------------------------------------------------------------------------------------------------------------------------------------------------------------------------------------------------------------------------------------------------------------------------------------------------------------------------------------------------------------------------------------------------------------------------------------------------------------------------------------------------------------------------------------------------------------------------------------------------------------------------------------------------------------------------------------------------------------------------------------------------------------------------------------------------------------------------------------------------------------------------------------------------------------------------------------------------------------------------------------------------------------------------------------------------------------------------------------------------------------------------------------------------------------------------------------------------------------------------------------------------------------------------------------------------------------------------------------------------------------------------------------------------------------------------------------------------------------------------------------------------------------------------------------------------------------------------------------------------------------------------------------------------------------------------------------------------------------------------------------------------------------------------------------------------------------------------------------------------------------------------------------------------------------------------------------------------------------------------------------------------------------------------------------------------------------------------------------------------------------------------------------------------------------------------------------------------------------------------------------------------------------------------------------------------------------------------------------------------------------------------------------------------------------------------------------------------------------------------------------------------------------------------------------------------------------------------------------------------------------------------------------------------------------------------------------------------------------------------------------------------------------------------------------------------------------------------------------------------------------------------------------------------------------------------------------------------------------------------------------------------------------------------------------------------------------------------------------------------------------------------------------------------------------------------------------------------------------------------------------------------------------------------------------------------------------------------------------------------------------------------------------------------------------------------------------------------------------------------------------------------------------------------------------------------------------------------------------------------------------------------------------------------------------------------------------------------------------------------------------------------------------------------------------------------------------------------------------------------------------------------------------------------------------------------------------------------------------------------------------------------------------------------------------------------------------------------------------------------------------------------------------------------------------------------------------------------------------------------------------------------------------------------------------------------------------------------------------------------------------------------------------------------------------------------------------------------------------------------------------------------------------------------------------------------------------------------------------------------------------------------------------------------------------------------------------------------------------------------------------------------------------------------------------------------------------------------------------------------------------------------------------------------------------------------------------------------------------------------------------------------------------------------------------------------------------------------------------------------------------------------------------------------------------------------------------------------------------------------------------------------------------------------------------------------------------------------------------------------------------------------------------------------------------------------------------------------------------------------------------------------------------------------------------------------------------------------------------------------------------------------------------------------------------------------------------------------------------------------------------------------------------------------------------------------------------------------------------------------------------------------------------------------------------------------------------------------------------------------------------------------------------------------------------------------------------------------------------------------------------------------------------------------------------------------------------------------------------------------------------------------------------------------------------------------------------------------------------------------------------------------------------------------------------------------------------------------------------------------------------------------------------------------------------------------------------------------------------------------------------------------------------------------------------------------------------------------------------------------------------------------------------------------------------------------------------------------------------------------------------------------------------------------------------------------------------------------------------------------------------------------------------------------------------------------------------------------------------------------------------------------------------------------------------------------------------------------------------------------------------------------------------------------------------------------------------------------------------------------------------------------------------------------------------------------------------------------------------------------------------------------------------------------------------------------------------------------------------------------------------------------------------------------------------------------------------------------------------------------------------------------------------------------------------------------------------------------------------------------------------------------------------------|--------------|-------------|-------------|-------------|-------------|-------------|-------------|-------------|-------------|-------------|-------------|
| 犯生十二月<br>符人月                                                                                                                                                                                                                                                                                                                                                                                                                                                                                                                                                                                                                                                                                                                                                                                                                                                                                                                                                                                                                                                                                                                                                                                                                                                                                                                                                                                                                                                                                                                                                                                                                                                                                                                                                                                                                                                                                                                                                                                                                                                                                                                                                                                                                                                                                                                                                                                                                                                                                                                                                                                                                                                                                                                                                                                                                                                                                                                                                                                                                                                                                                                                                                                                                                                                                                                                                                                                                                                                                                                                                                                                                                                                                                                                                                                                                                                                                                                                                                                                                                                                                                                                                                                                                                                                                                                                                                                                                                                                                                                                                                                                                                                                                                                                                                                                                                                                                                                                                                                                                                                                                                                                                                                                                                                                                                                                                                                                                                                                                                                                                                                                                                                                                                                                                                                                                                                                                                                                                                                                                                                                                                                                                                                                                                                                                                                                                                                                                                                                                                                                                                                                                                                                                                                                                                                                                                                                                                                                                                                                                                                                                                                                                                                                                                                                                                                                                                                                                                                                                                                                                                                                                                                                                                                                                                                                                                                                                                                                                                                                                                                                                                                                                                                                                                                                                                                                                                                                                                                                                                                                                                                                                                                                                                                                                                                                                                                                                                                                                                                                                                                                                                                                                                                                                                                                                                                                                                                                                                                                                                                                                                                                                                                                                                                                                                                                                                                                                                                                                                                                                                                                                                                                                                                                                                                                                                                                                                                                                                                                                                                                                 | 犯生十一月<br>符人月 | 犯生十月<br>符人月 | 犯生九月<br>符人月 | 犯生八月<br>符人月 | 犯生七月<br>符人月 | 犯生六月<br>符人月 | 犯生五月<br>符人月 | 犯生四月<br>符人月 | 犯生三月<br>符人月 | 犯生二月<br>符人月 | 犯生正月<br>符人月 |
| 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𪛗<br> |              |             |             |             |             |             |             |             |             |             |             |



왼쪽부터  
원행안전부(遠行安全符)  
먼 길을 떠날 때 안전을 비는 부적  
사업흥왕부(事業興旺符)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부적  
관재소멸부(官災消滅符)  
관(官)에 의한 재앙을 없애는 부적



부작이 단순한 의미를 갖는 데 비해, 부적은 서류 형태이므로 다양한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적을 수 있다. 부적은 일의 내용과 임무를 수행할 신장(神將) 그리고 옥황상제의 허가를 받았다는 직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부적에서 볼 수 있는 ‘칙령(勅令)’이라는 글자가 상제의 명을 받아 신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그런 때문에 부적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상제의 운허를 얻고, 신장을 부릴 수 있는 도력(道力)을 가진 이가 써야 효력이 있다. 또한 사용하는 이도 지극한 정성과 무한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부적을 쓸 때는 길일을 택해야 하며,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신을 청하는 복잡한 의식을 거치는 것은 물론 주문도 외워야 한다. 입을 깨끗이 하는 정구주(淨口咒), 단을 열 때 개단주(開壇咒), 신을 부르는 청신주(請神咒) 등 적절한 주문을 외워야 제대로 된 부적을 쓸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부적은 괴황지(槐黃紙)라는 기름 먹인 종이에 붉은 경면주사(鏡面朱砂)로 쓴다. 괴황지는 질기므로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함이고, 주사는 악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여기는 때문이다. 같은 중량의 금보다 비싸다는 주사는 단사(丹砂) 혹은 진사(眞砂)라고도 불리는데, 중국 경면산(鏡面山)에서 생산되며, 예전에는 거울의 뒤에 칠했기 때문에 경면(鏡面)이라는 말이 붙었다. 주사는 수은과 유황의 화합물인 황화제2수은(HgS)으로, 도가(道家)에서는 장생불사약의 재료로 사용했으므로 수은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수은은 음기(陰氣)가 극도로 응축된 물질이며, 유황은 양기의 정화(精華)이다. 이처럼 극양과 극음의 물질이 합치면 가벼운 마취 기능과 함께 정신 안정, 해열 및 해독 등의 작용을 한다고 한다. 옛날에 먼 길을 떠나는 이에게 ‘여행안전부’나 ‘호신부(護身符)’ 등을 준 것은, 냄새가 강한 주사가 산짐승을 쫓고 흑시라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 탈이 났을 때 부적(실은 경면주사)을 씹어 먹고 진통 효과를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인간이 가진 신념의 총체

《도서(道書)》에 따르면, 태상노군(太上老君) 즉 노자가 하늘에 올라 하계를 굽어보고 그림 같은 문자로 묘사했다는 ‘팔회지서(八會之書)’ 또는 ‘오악진형도(五岳眞形圖)’를 부적의 기원으로 본다. 이처럼 부적은 우주의 생성화육(生成化育)과 변화유전(變化流轉)의 약상(略象)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고, 동시에 천계와 인간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부적은 단지 피흉구복(避凶求福)을 위해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술사(術士)나 방사(方士) 같은 수도자들의 수련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부도(符道)라 하는데, 도를 이루기 위해 부적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도에 의해 제작된 부적을 사용하여 둔갑술(遁甲術)을 펼치거나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함은 물론, 불로장생의 복을 누리며, 국가를 태평하게 하고, 만민을 안온(安穩)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해진다. 부적은 대자연의 신비를 분석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한 우주심(宇宙心)의 형상인 동시에, 인간이 가진 신념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적은 천계(天界)와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여 우주의 역동하는 기를 받아들여 운로(運路)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오늘날에는 부적의 의미가 퇴색하여 흥을 피하고 복을 구하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이고 있지만, 본래의 용도를 잊지 않아야 함은 물론 하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KIM IN KYUM

JUST IN A BOOK OF ALL THE CONTEMPLATION WORLD